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학술토론회



주 최 : 정 읍 시
주 관 : (사)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북 정읍시 연지동 39-6
전화 (063) 533-9182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학술토론회



주 최 : 정 읍 시
주 관 : (사)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石外奇機文を四方に飛傳さるゝ知論の昇降を嘆か
各里の親綱
癸巳十二月日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학술토론회

▶ 일 시 : 2003년 12월 19일(금) 14:00~18:00
▶ 장 소 : 정읍시청 5층 회의실

학술토론회 안내

- 제1부** 14:00 ~ 14:30 사회자: 김 운 기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무처장)
- 인 사 : 유 성 업 시장 (정읍시장)
 심 요 섭 이사장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 축 사 : 배 문 환 의장 (정읍시의회)
 - 격려사 : 송 기 숙 (전 전남대학교 교수)

- 제2부** 14:30 ~ 18:00 사회자: 조 광 환 부이사장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 주제발표 및 토론
 - 전봉준 장군 출생지 정립**
 - 발표자 : 우 윤 관장 (전주역사박물관)
 - 토론자 : 송 정 수 교수 (전북대 사회교육학부)
 - 동학농민혁명정신과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방안**
 - 발표자 : 신 은 희 교수 (미국 심슨대학 종교철학과)
 - 토론자 : 이 재 봉 교수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 발표자 : 김 정 수 교수 (전북과학대 관광계열)
 - 토론자 : 장 병 권 교수 (호원대 관광레저학부)

Contents

■ 전봉준 장군 출생지 정립 7

전주역사박물관장 우 윤

I. 머리말

II. 천안전씨 족보 편찬일람표

III. 1886년에 간행된 [병술보]에 대한 검토

IV. 전봉준의 출생지에 대한 검토

V. 맺는말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23

전북과학대학 관광계열 교수 김 정 수

I. 서론

II. 관광환경 분석

III.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분석

IV.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V. 결론

■ 남북 민족 동질감 회복을 위한 동학사상적 접근 47

미국 심슨대학 종교철학부 신 은 희

I. 민족이란 무엇인가

II. 동학사상의 신 인본주의 (Neo-Humanism)

III. 사인여천과 주체 공동체

IV. 한민족 (One-Corea)과 다양한 코리아 (Multi-Corea)



전봉준 장군 출생지 정립

전주역사박물관장 우 윤

I. 머리말	9
II. 천안전씨 족보 편찬일람표	9
III. 1886년에 간행된 [병술보]에 대한 검토	11
IV. 전봉준의 출생지에 대한 검토	16
V. 맺는말	20

I. 머리말

우리 역사에서 1894년은 특별한 한 해였다.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집강소를 통한 농민 통치, 즉 농민 주도의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정부 주도의 갑오 개혁이 동시에 진행된 그야말로 대변혁의 한 해였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 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한 해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1894년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런 사건들의 연속에서가 아니라 그때 집권층마저도 방기했던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자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던 농민들이 갑오농민전쟁의 전면에서 나서는 낡은 사회를 뜯어고치고 내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곧 갑오농민전쟁을 분수령으로 한 시대를 이쪽과 저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니,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농민전쟁의 불꽃을 위해 살았고, 또 그 속에서 살다 갔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떠나자 농민전쟁의 불꽃도 사라졌다. 이 만큼 갑오농민전쟁과 하나가 된 인물이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 농민전쟁의 불꽃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부활하여 다시 서지 않았던가. 노래로든, 그밖에 어떤 방식으로든...

불꽃처럼 살다간 전봉준. 흥분과 감동이 정점에 도달한 순간 대단원의 막이 내린 연극처럼 아쉬움과 여운을 남기고 간 전봉준.

그러나 전봉준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실상이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더한다. 다만 그 자신의 공초기록이나 다른 자료를 통하여 그의 생애가 부분적으로 열기설기 정리된 채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공백인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런 공백을 단시간 안에 완전히 메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이 번 글에서는 전봉준의 출생과 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천안 전씨 족보들을 통해 전봉준의 출생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II. 천안전씨 족보 편찬일람표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한 인간의 업적과 가족관계, 생물연대와 배우자에 관한 내용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이것을 확장하여 윗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家系의 흐름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윗 대와 당대의 生居地까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대개 이러한 족보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에 따라 한 세대를 주기로 대동보나 세보란 형식으로 편찬 간행되지만, 支派에 따라 또 집안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사이에 간행되기도 한다. 천안 전씨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래와 같이 주기적으로 족보를 발간하였다.

도표 1 : 천안전씨 족보 편찬일람표

回 次	卷 數	譜 名	發 行 年 度	場	所	發 行 人
최초본	單 卷	成 化 譜	1470 年 度	한	양	全 循 義
第 2 回	失 傳	庚 午 譜	1510 年 度	고 창 문 주 사	사	全 自 完
第 3 回	失 傳	丁 亥 譜	1587 年 度	공 주 신 원 사	사	全 世 翼
第 4 回	失 傳	己 酉 譜	1609 年 度	천 안 검 계 서 원	원	全 有 道
第 5 回	1 卷	壬 申 譜	1632 年 度			
第 6 回	單 卷	甲 寅 譜	1674 年 度	공 주 갑 사	사	全 克 亨
第 7 回	3 卷	甲 申 譜	1704 年 度	진 안 금 당 사	사	全 一 滄
第 8 回	5 卷	戊 子 譜	1768 年 度	금 산 신 안 사	사	全 在 泰
第 9 回	7 卷	庚 申 譜	1800 年 度	천 안 검 계 서 원	원	全 始 祿
第 10 回	12 卷	辛 卯 譜	1831 年 度	천 안 검 계 서 원	원	全 泗 性
第 11 回		乙 卯 譜	1855 年 度	나 주 남 강 사	사	全 光 震
第 12 回	18 卷	壬 戌 譜	1862 年 度	금 산 광 업 체	체	全 ? 容
第 13 回	5 卷	甲 子 譜	1864 年 度	경	성	全 基 俊
第 14 回	6 卷	乙 丑 譜	1865 年 度	함 평 명 월 정	정	全 守 良
第 15 回	8 卷	癸 巳 譜	1893 年 度	영 암 업 길	길	全 圭 奉
第 16 回	5 卷	戊 申 譜	1908 年 度	전 남 회 룡 동	동	全 相 ?
第 17 回	16 卷	甲 寅 譜	1914 年 度	천 안 검 계 서 원	원	全 達 弘
第 18 回	6 卷	甲 寅 譜	1914 年 度	함 평 향 양	양	全 相 滄
第 19 回	13 卷	辛 未 譜	1931 年 度	진 안 문 중	중	全 載 敏
第 20 回	9 卷	庚 寅 譜	1950 年 度	광 주 승 모 제	제	全 基 洪
第 21 回	10 卷	丁 酉 譜	1957 年 度	천 안 검 계 서 원	원	全 海 龍
第 22 回	5 卷	丁 酉 譜	1957 年 度	전 주 시	시	全 基 洪
第 23 回	16 卷	戊 申 譜	1968 年 度	대 전 회 상 사	사	全 仲 權
第 24 回	7 卷	戊 午 譜	1978 年 度	광 주 낭 주 인 쇄 소	소	全 孟 鍾
第 25 回	6 卷	丙 寅 譜	1986 年 度	대 전 보 전 사	사	全 甲 植
第 26 回	16 卷	丙 寅 譜	1986 年 度	대 전 보 전 사	사	全 元 喆
第 27 回	2 卷	丁 卯 譜	1987 年 度	광 주 낭 주 인 쇄 소	소	全 東 洙
第 28 回	16 卷	己 巳 譜	1989 年 度	광 주 호 남 인 쇄 소	소	全 雲 鍾

그러나 1886년, 병술년에 간행되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천안 전씨 문중에서는 그 사실을 몰라 위의 일람표에서 누락된 천안 전씨 세보가 있다. 이 족보에 주목하는 까닭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간행되어 전봉준의 집안과 그에 관한 내용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전봉준과 가까운 친인척에 대한 내용이 다른 족보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다는 점 때문이다.

Ⅲ. 1886년에 간행된 [병술보]에 대한 검토

천안 전씨 족보들 중에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1886년에 간행된 [천안전씨세보 병술보(天安全氏世譜丙戌譜: 이하 병술보)]이다. 이 족보의 발견경위와 내용검토는 이미 송정수 교수가 “전봉준의 가계와 출생지에 대한 연구”(조선시대사학보12집, 2000. 3)를 통해 밝혔다¹⁾. 위의 논문에서 송정수 교수는 [병술보]는 전봉준의 가계와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본으로서 신뢰성이 높은 귀중한 자료라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 병술보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던 관계로 1953년에 발간된 ‘천안전씨 삼재공파보’와 1966년에 간행된 ‘천안전씨대동보’를 그대로 믿고 “전봉준 장군을 천안 전씨 삼재공파 40대손으로 부친인 亨鎬(자는 亨祿, 乙巳生, 1845년 생)와 모친인 光山 金氏(戊申生, 1848년 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초명은 琫準, 항렬명은 泳準이고 자는 明淑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송정수 교수는 나아가 “이 내용은 전봉준 장군이 1855년 생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의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겨우 1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또한 그의 어머니와는 8살 차이로 나타난다. 이것은 위 족보들이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위작된 것”²⁾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본으로서 [병술보]가 발견되었고, 이기화씨가 1993년 고창에서 이 족보를 근거로 ‘전봉준의 출생지는 당촌이다’는 주장을 하자 이 병술보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 때 제기된 문제점을 든다면 과연 이 [병술보]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가 과연 [병술보]에 실린 炳鎬가 전봉준과 동일인인가 하는 점이었다.

전봉준과 부모와의 나이 차이, 전봉준 개인에 관한 인적사항 등에서 송정수 교수는 위의 논문 속에서 여러 가지 방증자료와 정황을 통해 [병술보]는 신뢰할만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병술보]는 그후에 발간된(1931년 진안 문중에서 간행한 [신미보], 1957년 천안 검계서원에서 간행한 [정유보], 1957년 전주에서 간행한 [정유보]) 족보와 비교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안고 있다. 우선 [병술보]와 [신미보]가 각각 제시하는 전봉준의 가계도를 살펴보자.

도표2: [병술보]가 제시하는 가계도

1) 또 고창문화원 이기화씨도 이 병술보를 근거로 “전봉준은 고창 당촌 태생”(『향토사료』12·13집, 고창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1993)이라는 글을 발표하다. 이후 전봉준의 출생지에 대한 논쟁이 붙었고, 차츰 전봉준의 고창 당촌 태생이 유력하였다.

2) 송정수, “전봉준의 가계와 출생지에 대한 연구”『조선시대사학보』12집(조선시대사학회, 2000. 3), 133쪽

	全?	始祖	1世
	虎翼		2世
	榮		3世
	舜成		4世
	汝均		5世
	雲喬		6世
	元根		7世
	?		8世
	方春		9世
	敬智		10世
	而敏		11世
	?		12世
	億句		13世
	天寄		14世
	宗道		15世
	樂		16世
	洪述 △ △ △ △ △ △		17世
	△ 忠佑 △ △		18世
	世柱		19世
	△ 仁亮		20世
	○ △ 昇 △		21世
	信		22世
	成安		23世
	○ △ 德芳 △		24世
	謹		25世
	敏 △ △		26世
	△ 季欽		27世
	禧		28世
	○○ △ △ 五常 △ (松庵公)		29世
	△ △ 誠		30世
	○ 彦國		31世
	厚徵		32世
	萬紀		33世
	相圭		34世
	德臣	道臣	35世
	碩文	碩豐	碩雲
	基守	基煥 △ 基昶	基弼
	△	△△△△	炳鎬 泰鎬 斗鎬
	△△	△△△△△	東一
			39世

도표2: [신미보]가 제시하는 가계도

1	全攝																	
2	虎翼																	
3	榮																	
4	孝誠																	
5	舜恭	舜吉	舜良															
6	萬里																	
7	實																	
8	元浩																	
9	謹																	
10	鉤監																	
11	晉德																	
12	孟																	
13	敏																	
14	百金																	
15	昌瑜																	
16	林																	
17	載																	
18	完																	
19	?	?	植															
20			赫															
21			就洪															
22			加里															
23			良															
24			得恭															
25			太堯															
26			宗道															
27			克貴															
28			潤															
29			樂															
30			立中															
31			孝淑															
32			洪建	洪達	洪振	洪吉	洪聖	洪慶	洪術									
33									忠植	忠培	忠佑							
34											世柱							
35											仁亮							
36											旦	昇	?	?	?	?	?	?
37											信							
38											成安							
39											德新	德芳	德隣					
40												謹						
41												皓	皎	敏				
42														季欽				
43														禧				
44														五倫	五常	五紀	五行	
45															誠	謙	謹	
46															彥國	繼天		
47															厚微			
48															萬紀			
49															相圭			
50															道臣			
51															碩豐			
52															基昶	基性		
53															璋準			
54															東一			

*[정유보] (천안 검계서원 간행)에는 전봉준에게 金鍾萬과 결혼한 딸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위의 두 족보가 제시하는 가계의 계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천안 전씨 始祖인 攝으로부터 炳鎬에 이르기까지 세대 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병술보]는 38世, [신미보]는 53世이다. [병술보]는 15세대가 누락되어 있다. [병술보]를 간행한 측의 의도가 밝혀지지 않고, 어느 쪽의 족보가 진실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양자에 대한 신뢰성은 유보되어야 하겠지만 시조 섭이 백제 초기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술보] 쪽이 누락된 세대가 많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병술보]와 [신미보]에서 각각 15세손과 26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宗道에 이르는 가계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병술보]는 槃-舜成-汝均-雲喬-元根 으로 이어지지만³⁾, [신미보]에 따르면 槃 - 孝誠

┌	舜恭	
├	舜吉-汝均-喬-元根	
└	舜良	으로서 가계의 흐름이 다를 뿐

만 아니라 [병술보]의 舜成은 [신미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두 족보는 宗道를 중시조로 삼아 병호와 봉준 대에 이르기까지 가계의 계통을 완성시키고 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가계도가 각각의 족보에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병술보]에는 [신미보]에 기록되지 않은 德臣이 相圭의 차자로서 끼어 들고 있다는 점이다. [신미보]에는 상규의 아들은 도신뿐이다.

네 번째, [병술보]에는 [신미보]에 기록되지 않은 碩雲이 道臣의 장자로서 끼어 들고 있다는 점이다. [신미보]에는 道臣의 아들은 碩豐(병호의 조부)뿐이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병술보]에서는 德臣과 碩雲이 각각 끼어들었을까. 혹은 [신미보]에서는 누락되었을까. 이는 곧 [병술보]가 만들어지는 동기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참고 자료가 되는 족보가 있다. 1957년 전주에서 간행된 [정유보]이다. 이 족보에서는 萬紀의 아들 相圭가 절손(혹은 소재지 미파악)으로 되어 있고, 반면 五常의 두 번째 아들 謙의 5세손인 世壁의 후손들이 익산군 오산면에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곧 五常-謙-繼天-信綱-忠國-世壁-虎南, 虎成, 虎仁, 虎震, 虎三, 虎才 등으로 가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천안 검계서원에서 간행된 [정유보]에서는 五常-謙-繼天-信綱-忠國-世壁으로 가계가 이어지다가 世壁에서 절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미보]에서는 五常의 두 번째 아들 謙의 후손은 繼天에서 끊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병술보]와 같이 始祖 攝에서 宗道에 이르는 가계도는 1908년 전남 회령동에서 간행한 [무신보]에서도 발견된다. 이를 보면 천안 전씨 문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양대 견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문점을 일으키는 천안 전씨의 족보 중 하나인 [병술보]를 통해 가계의 계통을 밝히는 데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유보](전주 간행)에 기록된 바와 같이 相圭 대에서 절손이 되었는데 道臣과 德臣을 끌어들여 새로운 가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신미보]와 [정유보]에 보이지 않는 碩雲마저 끌어들여 道臣의 장자로 삼았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있다. 이 의문은 역으로 [신미보]가 [병술보]를 참고하여 전봉준의 직계만을 삽입하고 방계는 누락시킨 결과로 발생한 오류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의문은 곧 [병술보]를 만들어야 했던 동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병술보]는 상규의 후손 곧 道臣(상규의 장자)과 德臣(상규의 차자)의 후손들⁴⁾만이 갖는 절박한 동기에서 만들어진 僞譜일 가능성이 높다⁵⁾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들 고창파의 뿌리는 무엇일까. 이들의 진정한 조상은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확인할 자료는 현재 없다. 다만 1871년과 1895년에 편찬된 호남 읍지에서 고부와 고창에는 천안 전씨들이 유력한 성씨가 아니라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다⁶⁾.

그럼에도 [병술보]는 자료로서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적어도 도신과 덕신의 후손들의 인적 사항, 즉 생물연대나 배우자 관계, 묘의 위치 등은 한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인 만큼 임의대로 기록하거나 왜곡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신과 덕신을 비롯한 그 후손들의 인적 사항만큼은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야말로 오히려 [병술보]를 만든 근본 이유이고 또 자신들의 가족을 전씨 가문 중 우뚝한 인물 松庵公 五常⁷⁾의 한 갈래로서 떳떳하게 위치지을 수 있는 근거였을 것이다. 또 [병술보]가 갑오농민전쟁 직후에 대부분 불태워졌음에도 高敵派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그 중 극소수가 오늘날까지 보관되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갑오농민전쟁 이후 간행된 [신미보]와 [정유보](천안 간행)에서 [병술보]를 참고하여 다만 炳鎬를 琿準이라는 보명으로 수정하고 봉준의 직계만을 삽입시킬 수 있었던 것은 [병술보]를 위작한 이유와는 전혀 달리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로서 전봉준의 위명을 빌리고자 발생한 또 하나의 왜곡이었다.

4) 편의상 이름을 붙이자면 高敵派라고 할 수 있겠다.

5) [병술보]를 제작한 주요 인물은 당시 도신과 덕신의 후손 중 집안의 어른이었던 기창, 곧 병호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6)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읍지』4(전라도1)?5(전라도2), 아세아문화사, 1983 참조.

7)五常은 원종 3등공신으로서 선무랑이라는 종6품직에 오르고 造山萬戶를 지낸 인물인데, 전봉준은 이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 같다. 구한말 정교가 쓴 『대한계년사』2권 갑오년조에 보면 “於是 鄉民推前鹿島(屬興陽)萬戶全琿準爲魁”라고 하여 녹도 만호를 지내지도 않은 전봉준을 괴수로 추대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전봉준이五常의 만호 벼슬을 인용하여 자주 거론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가문의 정체성과 대인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병술보]는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 제작된 것이 아닐까.

Ⅳ. 전봉준의 출생지에 대한 검토

[병술보]는 위의 의문점을 갖는 위보임에도 병호가 전봉준과 동일인이고, 그의 출생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추적에 앞서 그 동안 전봉준의 출생지에 관한 이설을 먼저 살펴보자.

첫째, 고부군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이라는 설(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조소마을에는 전봉준이 살았다고 하는 옛집이 있는데, 그 집의 상량문에 집의 건축년도인 ‘무인’(戊寅: 1878년 또는 1818년)이라는 간지가 적혀 있어 전봉준의 출생년도와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으므로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또 단순히 고부군 태생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장도빈, 『갑오동학란과 전봉준』),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

둘째, 정읍군 덕천면 시목리(?木里: 속칭 감냉기)라는 설(신복룡, 『전봉준의 생애와 사상』). 이는 전봉준과 친숙한 사이였다는 옹택규(邕宅奎: 1852년~1928년)의 손자인 옹정원이 할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전주라는 설(장봉선, ‘전봉준실기’ 『정읍군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봉준이 원평의 황새마을(현재 정읍군 감곡면 계룡리)에 살 때 전주에서 이사해 왔다고 하여 전주 출신으로 오인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이 있다.

넷째, 고창현 덕정면 당촌 태생이라는 설(오지영, 『동학사』). 당촌에는 옛날 20여 호의 전씨 마을이 있었고 또 1894년의 농민전쟁 때 농민군의 두목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옛 古老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봉준과 밀접한 연고지인 것은 틀림없다(김의환, 『전봉준전기』)는 배경 설명과 함께 또 선대의 世居地가 고창군 신탄면 벽송리였으며 또한 선대의 묘가 모두 벽송리 승판동에 있다는 점에서 당촌 태생이 정설로 인정된다는(최현식, 앞의 책) 주장에 이어 이기화 고창 문화원장의 최근 논문까지 덧붙여져 출생지가 고창현 덕정면 당촌(지금의 행정 구역으로는 고창읍 죽림리 당촌 63번지)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이설이 많기 때문에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있기 전에는 단언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김의환, 앞의 책) 등이 있다.

이렇게 출생지에 대한 이설이 난립하고는 있지만 그 각각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한 시점에 주어진 하나의 장소가 각각 다른 몇 개의 장소로 바뀔 수 없는 것이므로 이들 모두는 허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만 실제 사실과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병술보]를 통해 전봉준의 출생지를 추적할 차례이다. 그러나 그의 출생지를 추적하기에 앞서 [병술보]에 실린 炳鎬와 전봉준이 동일인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송정수 교수가 위의 논문에서 밝혀 놓은대로 “철저하게 정확

증거가 인멸된 인물에 대한 이만한 방증이 있고, 또한 『병술보』를 간직해온 전성태씨가 어렸을 때부터 전병호라는 인물이 전봉준 장군이라는 말을 선친으로부터 줄곧 들어왔다는 주장을 관련지어볼 때,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은 이제 거의 사실이라 할 수 있”⁸⁾다고 본다.

그렇다면 [병술보]에 실린 병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보자.

초명은 철로(鐵爐)이고 자(字)는 명좌(明佐)이며 을묘년(1855년) 12월 3일에 태어났다. 그의 부인은 여산 송씨 두옥(斗玉)의 딸로서 1851년 8월 16일에 태어나 1877년 4월 24일에 죽었다. 부인의 묘는 태인 산내면 소금동의 할머니 묘 아래에 있다. 그후 전봉준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였는데 남평 이씨 교기(交琦)의 딸이다.

병호는 1855년에 태어났다. 전봉준도 1855년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공초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병호의 출생년도와 일치한다. 그리고 병호는 네 살 많은 여산 송씨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여 23살에 부인과 사별하였다. 마찬가지로 전봉준의 부인이 송씨라는 것은 전봉준이 체포되어 신문받을 때 그의 비서로 활약했던 송희옥과의 관계를 ‘처가 쪽으로 7촌이 된다’고 밝힌 점으로 보아 분명한 것 같고, 병호가 23살에 부인과 사별한 것은 전봉준이 일찍 부인과 사별하였다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전봉준이 살았던 지역 촌로들이 ‘부인이 오랜 병고 끝에 일찍 죽었다’는 증언에 근거한다. 전봉준의 두 번째 부인도 ‘국지점양(菊池謙讓)’이라는 일본인이 1939년에 쓴 「근대조 선사」(하)에 “전봉준은 지난번 초토사 홍계훈과 화약을 맺어 전주에서 퇴각하여 태인 동곡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에는 후처 이소사(李召史)가 오랫동안 규방을 지키며 전처의 자식과 뒤에 얻은 두 명의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다.”고 밝혔듯이 이씨인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봉준의 어머니 집안, 곧 외가가 언양 김씨라는 것도 원평의 언양 김씨 집안에서 들려주는 증언과 일치한다.

[병술보]의 제작 동기와 관련지어 본다면, 덕신의 후손인 전성태씨와 같은 증언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생존의 기로와 직결되는 절박한 내용이므로 오히려 문헌적 근거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것이다. 갑오농민전쟁으로 인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가족의 선택 앞에서 병호가 전봉준이라는 사실은 세대간의 기억을 통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집안의 비밀이었을 것이다. 전성태씨 가족의 일원이었던 병호가 전봉준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반대 근거 또한 없다.

[병술보]에는 병호 윗 대의 葬地를 적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거주한 곳을 추론할 수 있다.

8) 송정수, 앞의 글, 138~139쪽

엄격히 말해서 묻힌 곳과 사는 곳이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명당터라면 거리를 불문하고 장지로 삼았던 시대였던 만큼 양자 사이의 관련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명당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집안이 차츰 기울어지고 있는 무렵이라면 사는 곳 부근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인정한다면 전봉준의 증조부 道臣의 묘지가 임실 강진면 울치에, 조부 석풍(碩豐 : 1790~1857년)의 묘지가 고부에 있었으므로, 이들은 각각 임실, 고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전창혁은 [병술보] 간행시 생존해 있었으므로 묘지가 있을 수 없고, 그러나 그 때 이미 그의 동생과 4촌, 6촌 형제들은 모두 고창군 덕정면에 묻힌 것으로 보아 어느 시점(아마도 조부 석풍이 죽은 1857년 직후)부터 이들 종형제들은 일제히 고창군 덕정면 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전봉준은 고창으로 이주하기 전 1855년에 태어났으니까 그의 출생지를 고부 쪽으로 잡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렇다면 전봉준의 출생지는 어디일까. 우선 [병술보]에 적힌 그의 조부 석풍의 기록을 보자.

자는 윤보(允甫)이고 정조 경술년(1790년) 8월 10일 출생하였고 철종 정사년(1857년) 5월 16일 졸하였다. 향년 68년이며 묘지는 고부 남부면 진장문하(鎭長門下) 차복리(次福里) 전(前)에 있다. 방향은 갑묘용간(甲卯龍艮) 좌(坐) 유(酉) 파지(破地)이다.

전봉준의 조부가 고부군 남부면 진장 문 아래 차복리 앞에 묻힌 것으로 보아 전봉준의 가족은 진장과 차복리 부근(사발통문을 모의한 고부면 신중리 주산 마을로 들어가는 입석리의 진선마을을 비롯한 부근 마을에 해당)에 살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전봉준은 조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을 것이다.

진장과 차복리는 고부 관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이런 곳에 살았다는 것은 혹시 전봉준의 집안이 고부 관아나 향교와 관련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확인할 자료는 없다. 다만 뒷날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고부 향교의 掌議를 지냈다는 기록(장봉선, ‘전봉준실기’『정읍군지』)이 있어 추론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에 대해 향교의 장의는 세거토호나 차지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하여 아무런 연고 없이 고부 땅에 흘러들어온 전창혁이 맡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반대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병술보]에 적힌 내용을 일단 따르다면 전봉준의 10대조 五常은 원종 3등공신으로서 선무랑이라는 종6품직에 오르고 造山萬戶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誠은 통덕랑이라는 정5품직에, 전봉준의 고조부 상규 또한 통덕랑에 오를 정도로 그의 집안은 양반 가문에 속했다. 다만 전봉준의 증조부 도신 대부터 벼슬길이 막히고 경제적으로 몰락을 거듭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다 전봉준의 조부 석풍 때 고부 남부면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다. 이런 집안의 내력을 갖는 전창혁이라면 고부 향교의 장의를 맡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병술보]가 위보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를 근거로 집안의 내력을 밝히기 어렵다.

또 일설에는 전봉준의 집안은 世代로 고부 吏家이었다(장도빈, 『갑오동학란과 전봉준』; 이돈화, 『천도교창건사』)는 주장도 있어, 장창혁 뿐만 아니라 윗 대부터 고부 향리를 지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전봉준 집안은 조부가 돌아가자 어떤 이유에선지 전창혁의 종형제들이 고부를 떠나(일부는 석풍의 死 前일 수도 있음) 고창 덕정면으로 이주하였는데, 이 때 전창혁 또한 아장아장 걷던 전봉준을 데리고 고창 덕정면 당촌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봉준이 유년기일 때 고부를 떠나 당촌으로 옮겨 살았기에, 유소년기의 흔적들은 고부 보다 당연히 고창 당촌에 더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마을 촌로들의 증언도 고창 쪽이 훨씬 풍부하고 생생하다. 결국 두 서너 살 때부터 살았던 고창 당촌이 고향과 출생지로 여겨졌을 것이고, 전봉준도 이를 굳이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이런 사실은 전봉준과 함께 농민전쟁에 참가했던 오지영이 『동학사』를 쓰면서 ‘전봉준 선생은 본래 전라도 고창현 덕정면 당촌태생으로 世代 士林家 사람이다’ 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봉준이 당촌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고 고창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 그런만큼 당촌은 전봉준이 태어난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유소년기를 보내며 친구들과 사귀고 꿈을 키웠던 곳으로 전봉준의 생애에서 빠트릴 수 없는 곳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전봉준의 조모 인동 장씨(1797~1876년)가 태인 산내면 소금곡(小金谷)에 묻히고, 첫 번째 부인 여산 송씨(1851~1877년)가 역시 태인 산내면 소금동(巢禽洞)에 묻힌 것으로 보아 그의 첫 번째 부인과 사별했을 무렵에는 이미 당촌을 떠나 태인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봉준은 고부 진장과 차북리 부근의 마을에서 출생하여, 유년기에 고창 당촌으로 옮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촌도 한 가정을 꾸릴 나이에 떠나야 했다. 그후 이곳저곳으로 옮겨산 것이 확인되는데, 이런 까닭으로 출생지에 대한 다양한 이설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병술보]는 전봉준의 출생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고, 방증 자료와 심도 있는 현장답사를 통해 심도있는 추적이 필요할 것이다.

V. 맺는말

[병술보]를 비롯한 천안 전씨 족보(1931년의 [신미보], 1957년 천안과 전주에 각각 간행된 [정유보])를 통해 전봉준의 출생지를 재검토하였다.

우선 [병술보]는 도신과 덕신의 후손들, 이를테면 고창파들이 주도하여 만든 그들만을 위한 족보이다. 이는 당시 신분질서가 흐트러지고 향촌사회가 분해될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官의 수탈에 대항하여 존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어느 집안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보여지고, 이를보면 그나마 그 집안은 문자를 해독하고 또 지식인의 존재를 짐작케 한다. 그가 바로 [병술보]의 제작을 주도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병술보]가 제작될 당시 고창파 중에는 집안의 큰 어른이면서 지식인이라면 전봉준의 아버지가 떠오른다⁹⁾. 그가 주도하여 송암공 五常의 후손으로서 고창파를 위한 [병술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확인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병술보]는 고창파들의 인적 사항만큼은 왜곡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고창파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술보]에 실린 고창파의 일원인 병호가 전봉준이라는 전성태씨의 주장과 함께 병호에 대한 인적 사항이 전봉준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병호의 조부 석풍의 인적 사항은 전봉준의 출생지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단서였다.

전봉준은 조부 석풍이 고부군 남부면 진장 문 아래 차복리 앞에 묻히기 전 1855년 12월 3일 진장과 차복리 부근 마을에서 태어났다. 전봉준은 조부가 돌아간 직후 가족이 당촌으로 떠나기 전까지 이 마을에서 유년기를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전봉준은 아버지 창혁이 그의 종형제들을 따라 고창 당촌으로 이주하자 고향을 뒤로하고 당촌으로 옮겨살았다.

너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고 당촌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전봉준이었기에 당촌에서의 어릴 적 일화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린 전봉준이 명절 날이면 건너편 김씨들이 많이 사는 부작 동네인 ‘대산몰이’ 마을의 아이들과 보름씩 패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이때 전봉준은 늘 대장이 되어 앞장 서서 싸웠다고도 하는 데 이는 곧 그런 사정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부에서 태어난 전봉준이 고창 당촌으로 출생지가 바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끝으로 [병술보]가 고창파들이 주도하여 만든 위보라면 전봉준 집안의 뿌리는 과연 무

9) 전창혁의 인물됨과 향촌에서의 활약상은 우 윤, 『1894』 (하늘아래, 2003), 56~61쪽 참조

엇일지 또다른 의문이 고개를 드나 이 번에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없다면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자.

전봉준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백여 년이 지난 뒤에도 그의 출생지마저 다양한 이설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후손들의 무심과는 또다른 역사연구자에게 가해지는 질책으로 느껴진다.

- 끝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전북과학대학 관광계열 교수 김 정 수

I. 서론	25
II. 관광환경 분석	26
III.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분석	30
IV.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39
V. 결론	45

I. 서론

정읍은 1894년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기치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로서 반봉건 반외세를 주도한 핵심지역이다. 따라서 시 관내에는 많은 혁명 유적지가 있고, 이에 대한 발굴 및 복원·조성사업이 그 동안 전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추진되어 왔다. 또한 이 지역 순수 민간단체인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매년 개최해온 기념제와 선양사업이 어느덧 서른 여섯 해를 맞이하여 그 자체로서 역사성을 지니며,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더불어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해온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크게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한편 전적지 문화자원은 대부분 주제 자체가 경직되어 있어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완의 슬픈 역사를 지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도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래서 외래 내방객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학생들이 외의 다른 계층은 다소 적은 것이 현실이다. 문화유적에 대한 무관심은 유적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심하게 훼손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없는 곳에 문화가 존재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적 지향을 외면하면 할수록 일반인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져 가게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외래관광객까지를 문화적 관심아래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각국은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 관광상품화는 물론 국가 관광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관광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관광분야에 큰 관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인력이 높은 이벤트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문화권, 태산선비문화권, 정읍사문화권, 내장산관광문화권 등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사계절 테마관광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조성과 기념사업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권에 따라 사업 주체의 변동을 겪었고, 정략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온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성공하지 못한 전적유적지로서의 한계 때문에 유물·유적의 훼손과 활용에 대한 많은 제약 등의 문제점도

지녀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정읍시 문화관광과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관계공무원, 문화유산해설사, (사)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임원, 그리고 유적지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도 직접 방문하여 질의·응답한 결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범위는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및 기념관, 그리고 기념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내용은 정읍의 관광환경과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의 현황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범위가 정읍지역에만 한정되었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이 누락되고 소수 전문가 집단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에 의한 검증절차만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Ⅱ. 관광환경 분석

1. 일반현황

(1) 관광권역 및 시장

정읍시는 5대관광권 24소관광권 중 서남관광권의 전주·군산권에 속한다. 서남관광권은 최대 해상관광자원을 가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연결되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된다. 그리고 전주·군산권은 전라북도 내에서 시장성이 가장 풍부하여 관광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다.

1995년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은 관광객 수는 약 130만 명으로 1985년의 약 86만 명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이며, 1994년의 136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1999년에는 69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관광객의 계절별 형태는 단풍철 성수기인 10~11월에 약 70%정도가 집중되어 1계절형 관광특성을 나타내며, 이로 인한 교통혼잡과 숙박 및 편의시설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관광객은 1996년의 경우 35만여 명에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0년엔 30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아직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 동안 홍보가 미흡한 것이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읍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996년에는 2,036명이었으나 1997년에 1,925명으로 감소하고 1998년에는 1,991명으로 더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는 2,082명으로 약간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1,582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등 기복이 심하다.

(2) 관광교통 및 관광대상

철도역은 관내에 정읍역, 신태인역, 감곡역, 초강역, 천원역, 노령역 등 총 6개의 역이 있으나 주로 정읍역이 철도수송의 주 역할을 하며, 신태인역이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인터체인지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되는 3개의 IC가 있으며, 정읍IC와 내장IC는 정읍시내 교통 또는 내장산 국립공원 등 관광교통량의 진출·입을 담당한다. 정읍시를 중심으로 주요도시와의 거리는 육로는 서울, 부산, 대구가 약 4~5시간 소요되며, 철도는 평균 4~6시간이 소요된다. 내장산특구의 경우 반경 50km 이내에 도내 주요 관광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서남관광권 거점관광지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관광농원의 경우 백학관광농원, 내장산관광농원, 두승산관광농원, 정읍관광농원(휴업) 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3) 문화재 현황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지방지정 문화재로 분류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의안백이화개국공신록권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은선리 3층석탑 등 9개소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방지정 문화재는 군자정 등 15개소가 유형문화재, 시조창 등 5개 부문이 무형문화재, 고부 구읍성 등 16개소가 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총 48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정읍지역은 전라북도에서 남원 16.3%, 전주 11.1% 다음으로 도내 문화재에서 3번째로 많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4) 관광기업

〈표1〉 관광사업체 등록추이

(단위: 개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여 행 업	일반여행업	0	0	0	0	0
	국외여행업	4	4	5	5	5
	국내여행업	12	13	15	14	15
관 광 숙 박 업	관광호텔업	1	1	1	1	1
	국민호텔업	0	0	0	0	0
	휴양콘도미니엄	0	0	0	0	0
	가족호텔업	0	0	0	0	0
	한국전통호텔업	0	0	0	0	0

자료 : 정읍시 통계연보, 2002.

정읍지역의 관광숙박업체 수가 몇 년째 답보 상태로 있어 장기 체류 관광객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

2. 정읍시 4대 관광권 개발 계획

(1) 배경

정읍은 서편에 호남평야의 농경문화, 동편에 노령산맥 끝자락의 빼어난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있고, 삼한시대부터 고을이 형성된 이후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정읍관광의 상징인 국립공원 내장산이 사계절 관광기능으로 미흡하며, 정읍의 고유한 태산선비문화, 동학농민혁명, 정읍사가 관광상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잘 발달된 교통망 역시 관광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관광열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세의 위치로 바뀌어 가히 관광위기라 할 수 있어,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이 시급하다. 4계절 관광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4대 권역을 설정하고 특성에 맞는 테마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가족단위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

(2) 권역별 개발 계획

가. 태산선비 문화권

칠보, 태인, 옹동, 산외, 산내, 북면 등을 중심으로 선비문화유산이 많고, 맑고 풍부한 물 수려한 산 등 생태관광의 중요 요소도 갖고 있으므로 청소년 메카로 조성한다. 그 개발범위는 문화자원을 정비하고, 비, 물·산을 이용한 수련시설계획, 생태탐방, 농촌관광 등이 된다.

나. 동학농민혁명 문화권

고부, 덕천, 이평, 영원등을 중심으로 황토현을 상징한 황토관광지를 조성한다. 개발사업 범위는 황토마을, 황토체험장, 황토건강촌, 황토편선, 토속음식촌 등이다.

다. 정읍사 문화권

상교동, 시기3동의 정읍사공원일대에 백제시대를 형상화한 백제촌락을 주제로 백제정촌현을 재현하고, 정읍사의 가무악극·창·가요 등을 창작하고 보급한다.

라. 내장산 관광문화권

내장상동, 상교동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탐방과 위락·레저·휴양을 겸한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생태탐방, 리조트개발, 답곡지구 개발, 내장호 레포츠시설 등)

(3) 문화관광 기반 조성 계획

상설관광안내소(2003년에 내장산우체국자리, 2004년에 정읍 신IC입구)를 설치완료하고 대형주차장(수성동 지구, 구시장 인근)을 완비하며, 전 시민의 관광요원화(기관단체 영상홍보 자료 배포 및 직접순회 교육)와 관광홍보체계를 구축(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4개 시·군 구성추진, 관광안내자원봉사단 100명, 통역안내원 3명, 문화유산해설사 6명)한다. 관광관련서비스업종의 관련자 교육(친절, 친절서비스)을 실시하고, 관광상품개발(향토전통음식, 기념품, 향토전통음식 품평회, 향토전통음식의 평가 및 연구발표, 관광상품 공모전,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계획 등을 추진한다.

3. 동학농민혁명 문화권 개발 계획

(1) 문화관광 특구

가. 지정 예정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및 유적지가 집중(29곳)되어 있는 이평면, 고부면, 덕천면 일대로 한다.

나. 특구 지정의 필요성

혁명의 진원지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과 외지인의 관심이 비등하고 지역 내 유적 29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유적지 탐방객이 연간 약 5만 명이며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읍시를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선양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통과 절의·충효의 고장이고 정읍사, 상춘곡,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이며 호남지역에서 백제, 조선시대 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다. 기대효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성역화 사업으로 승화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탐방객 증대로 관광수입이 증대하고 황토현 전적지의 이미지에 부합한 황토관광지 조성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체계적인 개발로 보호보존이 가능하고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황토관광지 조성 계획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규모 캠핑장을 조성하며 황토벽돌 공장, 황토도예방 등 황토체험장을 건립한다. 미용제품, 맛사지, 찜질방, 황토한방단지 등 황토 및 녹두 건강촌을 조성한다. 황토 펜션단지 및 황토 민박촌 등 황토 숙박마을을 조성

하고 향토음식거리 및 토산품판매장을 조성한다. 녹두전문식당, 한우전문식당, 황토밭 생
산품 판매장, 녹두상품 중심 판매장을 구축한다.

(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중심 이벤트 계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계획하여 시행한다.

- ㉠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2월(전국 동학농민혁명단체, 학자, 언론 등)
- ㉡ 전봉준 마라톤 대회 : 4월(황토현 전적지~백산 봉기 장소)
- ㉢ 농민 두룻굿 : 6월(지역 내 농민잔치)
-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순례 : 8월(전국 학교 하계훈련)
- ㉤ 동학농민혁명 예술제 : 10월(음악, 미술, 서예 등)
- ㉥ 동학혁명체험 동계 극기훈련 : 12월(시민, 학생, 동학농민혁명단체)

Ⅲ. 동학혁명 유적지 현황 분석

1. 기념사업 현황

(1) 전북지역

백주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이제 전북지역
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계승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역이었던
정읍과 전주지역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창, 완주, 김제, 부안, 남원
등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획과 사업들이 펼쳐졌
거나 계획되고 있다. 우선 이들 사업을 시기별로 보면 무장기포, 백산 봉기, 황토현 전승일,
전주입성일, 삼례 봉기 등이 매년 사건 자체를 기념하면서 대중적인 기념사업으로 펼쳐지
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의 순국일에도 소규모 기념식이 치러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로 36회 째를 맞은 (사)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관하여 치러지는 농민혁
명기념제는 정읍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았고 전국의 대표적인 기념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1993년부터 주관해온 백산 봉기 기념행사나 전
주입성 기념대회 역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대중적인 기념행사
와 함께 학술, 문화적인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기념사업회들이 열어온 기념학
술대회나 책자발간 등으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역사 가운데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연

구업적과 성과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역시 문학, 무용, 연극, 국악, 미술, 서예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정읍지역

정읍지역의 선양사업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10월 3일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건립하고, 기념탑 건립추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왜곡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정신과 의의를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1967년 기념사업회를 창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념행사를 준비하였다. 당시는 군사정권이 정권 합리화에 열중하면서 혁명의 상징성을 이용하였던 시기로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열성적인 관심과 참여로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치러 오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곧 지역정신으로 자리 매김 하여왔다. 그러나 1980년 5월 제13회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를 끝으로 5공화국의 신군부에 의해 민간기념사업회가 강제로 해체되고, 기념식이 정읍군으로 이관되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사로 전락하였고, 더욱이 시·군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행사는 반쪽 짜리 행사로 그 뜻을 크게 상실하였다. 1990년 들어 정읍지역의 민주단체를 중심으로 기념문화제의 민간주도와 시·군 합동행사를 위한 서명작업 추진 등이 있었고 1992년에 먼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는 7개 민주단체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준비위를 구성하게 된다. 준비위는 5월 5일에서 5월 11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민간주도의 기념식, 유적지 순례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가시적 사업을 통하여 민간주도 기념행사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지역인사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조직을 상설 기구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이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로 발전하였고, 시·군의 민간사업회가 통합하면서 명실공히 민간단체가 기념사업의 추진 주체로 바로 서게 되었다.

(3)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는 1968년 4월 26일, 동학농민군의 백산 봉기일(1894년 3월 21일, 음력)에 맞추어 제1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시작한 이래 36회에 이르렀다. 1971년 제4회 행사부터 황토현 전승일(1894년 4월 7일(음력), 양력환산 5월 11일)로 변경하여 행사를 치른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0년 5월, 제13회 갑오동학혁명문화제에 김대중씨가 참석하여 연설한 일로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해체되고 1981년 5월, 제14회 행사부터는 정읍군으로 이관되어 치러졌고, 1995년 제28회 기념제를 민간주도로 되찾을 때까지 지역 민간 단체들의 외면을 받는 관 주도 행사로 치러졌다. 1993년 4

월,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발족하고, 1994년 고부봉기 100주년을 맞아 관련 단체들과 연합하여 치른 고부봉기 역사맞이굿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본 고장으로서의 정읍과 정읍시민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1995년 제28회 기념제를 민간단체로 환원하여 갑오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치르게 되었다. 2000년 5월, 제33회 행사부터 행사이름을 동학농민혁명기념제로 바꾸어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개혁혁명운동의 발상지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기리고자 다양한 문화행사를 포함하여 치른다. 올해부터는 행사장소를 정읍시내에서 역사의 현장인 황토현으로 변경하였고, 행사의 주관도 정읍시와 함께 하는 등 행사의 경과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2. 유적지 개발 현황

(1) 일반현황

전라북도 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는 모두 77곳이다. 그 중 정읍지역이 29곳(38%)으로 가장 많고 다음 전주지역이 13곳(17%), 그리고 고창지역이 12곳(16%), 김제 7곳(9%), 완주 6곳(8%), 남원 6곳(8%), 임실 2곳(3%), 부안, 순창이 각각 1곳(약 1%)이 있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면 지도자들과 관련된 인물유적이 24곳, 모의 및 집결 등 사건유적이 18곳, 관련유적이 13곳, 전투유적지가 10곳, 기념유적이 11곳, 기타 1곳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유적 가운데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든 기념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27곳이며 그 중 기념비가 1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념탑이 6개, 묘역이 5곳, 동상이 2곳, 기념관이 2곳, 고택과 표석이 각각 1곳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1993년 혁명 1백주년 이후 집중적으로 조성된 유적들이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전봉준 고택(정읍), 황토현 전적기념관(정읍), 백산 성지(부안) 등 3곳이며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만석보유지비(정읍)가 유일하다. 이처럼 정읍지역은 고부봉기와 3월 봉기의 중심이 되는 고장으로서의 역사적 위상이 높다. 따라서 관련 유적지가 가장 많고 전국 각지에서 유적지 순례를 위한 방문객들이 모여드는 고장이기도 하다.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경우 옛 고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인접한 태인 역시 많은 유적지를 남기고 있다. 이들 유적지들은 대부분 고부봉기 및 3월 봉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유적들로 이 지역이 동학농민혁명의 모태가 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정읍지역의 유적지들을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인물유적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사건유적이 7곳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지도부의 활동근거가 바로 이곳 정읍지역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건유적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

전유적들의 경우 고부봉기와 3월 봉기의 중심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 유적지별 개발 현황

〈표2〉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분류

유 형	유 적 지
인물유적	전봉준 고택, 전봉준 피체지, 전봉준 묘역(단소), 김개남 생가터, 김개남 묘역, 김개남 고택터, 김개남 피체지, 손화중 생가터, 손화중 묘역, 최경선 묘역, 최경선 생가터(11곳)
사건유적	사발통문 작성지(모의탑), 고부관아터, 만석보유지(비), 말목장터, 예동마을 혁파비, 영학당 집결지(7곳)
전 적 지	태인전투지, 황토현 기념탑, 사시봉, (3곳)
기념유적	무명농민군 위령탑, 황토현 기념관, 전봉준 공원(100주년 기념탑), 동학농민혁명기념관(4곳)
관련유적	조규순 영세불망비, 무성서원, 군자정, 고부향교, 고부읍성(5곳)

자료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기본계획, 1999. 6을 참조하여 논자가 재구성.

가. 인물유적

㉠ 전봉준 고택(사적 제293호)

1894년 고부농민봉기 당시 전봉준이 살았던 흙담 오두막집이다. 이 집은 관군들이 불을 질러 버렸는데 1974년에 보수하였고 1984년 지방문화재에서 사적 제293호로 격상되어 이 옷 택지를 사들여 정비하였다.(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 전봉준 묘역(단소)

1954년 천안 전씨 종문에서 조소마을 서쪽 구릉에 설단했다. 전봉준은 1895년 3월 30일 서울에서 교수형을 당했으나 시체를 찾지 못해 묘가 없으므로 단을 쌓고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

㉢ 김개남 생가터

이 곳은 김개남의 종가가 있었던 마을로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출생설과 더불어 일찍부터 생가터라는 주장이 대두된 곳이다. 본래 지금실이였다는 설도 있으나 이곳 정양리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 김개남 묘역

태인현 동곡리 지금실에서 출생하여 태인 접주로 1894년 갑오동학혁명 3월 봉기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9월 봉기에는 금산을 거쳐 서울로 향하다가 11월 청주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패하고 태인으로 돌아왔다.(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㉓ 김개남 고택터

이 곳은 김개남의 묘역과 고택지로 알려진 상지금실 마을로 12가구로 형성된 벽지 마을이다. 현재 생가터라고 주장되는 곳에는 50여 평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김개남 장군 생가터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㉔ 김개남 피체지

임병찬은 김개남을 유인해놓고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에게 고발하니 이도재는 황헌주로 하여금 강화병 80명을 거느리고 종송리에 와서 12월 1일 새벽에 김개남을 체포해 갔다.(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상종성)

㉕ 손화중 생가터

정읍시에서 입암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지금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개인 소유의 가정집이 들어서 있다. 옛집은 헐어졌고 그 자리에 집 위치와 골목과 대문의 위치가 바뀐 상태로 있다.(정읍시 과교동)

㉖ 손화중 묘역

손화중의 가묘가 있는 곳으로 저 멀리 내장산과 입암산이 내다보이며, 1996년 후손들에 의해서 조성된 묘역에는 돌레석을 두른 봉분과 제단과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묘소 앞 좌우로는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정읍시 상평동 음성리)

㉗ 최경선 묘역

정읍에서 칠보쪽으로 약 13km 정도 큰 길을 따라가면 오른쪽으로 축현리 입구에 동학농민군 영술장 최경선지묘라는 도로표지판이 나온다. 이곳에서 약 5km 정도 더 가면 동학농민군 영술장 최경선 실묘가 나온다.(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㉘ 최경선 생가터

축현리 입구 조금 못 미쳐서 왼쪽에 보이는 마을이 월천동이다. 현재 당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632번지에 남아 있는 몇 개의 기둥과 서까래 정도이며, 최씨 문중의 사당터 옆에 있는 세 그루의 감나무뿐이다.(정읍시 북면 마정리 월천)

나. 사건유적

㉙ 사발통문 작성지(모의탑)

1983년 11월 이곳 대외마을 송두호의 집에 모여 고부군수 조병갑을 응징하자는 사발통문을 만들어 관내 이장들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이듬해 갑오동학혁명으로 이어졌다. 1969년 4월에 탑을 세웠다.(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 고부관아터

당시의 고부군 관아터는 현재의 고부초등학교 자리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표석에는 ‘옛날 우리 고장의 뿌리인 고부군 관아가 있었던 유서깊은 옛터를 길이 기리고자 이 표석을 세운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 만석보유지(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

1892년 5월 고부군수 조병갑이 새로 부임하여 구보(예동보) 아래에 보다 큰 새 보를 막았다. 만석보는 1984년 정월 고부농민봉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 농민봉기 후 만석보의 신보는 농민들에 의해 헐렸다.(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 말목장터

말목장터는 5일장이 서는 장터로서 당시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는데 봉기 때 농민군들이 머물던 곳에 서있던 감나무는 수령 180여 년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고사되어 버렸고 그 옆에 말목정이 세워져 있다.(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 예동마을 혁파비

갑오년 1월 10일 배들평야를 중심으로 인근 10여 부락의 풍물을 동원하여 이곳에 사람들을 모아 고부관아를 습격하게 된 역사적인 장소이다.(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 영학당 집결지

혁명이 좌절된 후 생존한 동학농민혁명군 최익서 등이 1899년 4월 18일 전라도 서남부 지방 농민 300여명과 별왜·별양, 보국안민을 표방하고 재봉기를 일으킨 곳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맥락을 같이하는 역사적인 곳이다.(정읍시 입암면 왕심리)

다. 전적지

㉥ 황토현 전적지(사적 제 295호)

1894년 5월 11일 전봉준이 거느리는 동학농민혁명군이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전한 곳이다. 전라도 동학농민혁명군 약 4천명은 4월 7일 새벽 이경호가 거느린 전라감영군 2천명과 싸워 대승을 한 곳이다. 1963년 10월 3일 이곳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지고 1981년 성역화사업이 추진되었다.(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 태인 전투지

원평전투에서 패한 전봉준의 주력 부대는 갑오년 11월 27일 이 세 곳에 진을 친 후 일본군과 관군을 맞아 성황산 한 곳으로 집결하여 싸웠으나 참패하고 말았던 최후의 격전지이다.(정읍시 태인면 대성리 성황산)

㉧ 사시봉

1894년 4월 6일 황토재 전투 시 농민군 유진지로 관군의 야습을 맞이하여 관군을 함정에 몰아넣고 크게 승리를 한 전투지이다.(정읍시 덕천면 용정)

라. 기념유적

㉓ 무명농민군 위령탑

이름도 없이 희생된 갑오선열들을 추모하고 위안하는 뜻에서 동학혁명 1백주년을 맞아 1994년 9월에 주산마을에 이 탑을 세웠다.(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㉔ 전봉준 공원(백주년 기념탑)

갑오동학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7년 5월 11일 완공한 이 탑의 높이는 19.94미터이며 부탑은 지름 85cm에 높이는 11미터이다. 기념탑의 높이 1,894cm는 갑오동학혁명 발생년도인 1894년을 상징한다.(정읍시 쌍암동)

㉕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중)

〈표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요시설

시 설 명	면 적	시 설 내 용
교육관(1층)	1,543.76㎡(467평)	기계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영사실
전시관(1층, 2층)	3,816.56㎡(1,155평)	기계실, 전시교육실, 영상실, 도서및자료실, 휴게실
야외교육행사장(1층)	398.23㎡(121평)	무대, 음향실, 준비 및 대기실
상징물		동학문, 표석, 횃불탑

자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04년 5월 개관 예정이다. 이곳은 동학관련 유물의 전시·연구·교육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장 유물은 그 동안 구입, 기증, 위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현재 646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물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주요유물은 〈표4〉와 같다.

〈표4〉 동학농민혁명 유물수집 현황

분 야	점 수	주 요 유 물	비 고
군 사	92	소포, 조총, 육철포, 영기, 일산, 나팔, 마름쇠 등	
역 사	137	조야기년, 일용반다, 요람, 동학농민군 호패, 홍선대원군효유문, 고부군달천면행심안, 오통절목, 향약장정 등	
생 활	233	베틀, 도포, 관복, 쇠스랑, 대패 등	
종 교	184	동경대전, 용담유사, 진종보감, 집지록, 전세경 등	
합 계	646		

자료: 박재상 전라북도 학예사가 임시로 분류(2003. 12)한 현황자료에서 발췌하였음.

한편 동학농민혁명 전라북도관리사무소는 2003년 야생화전시회, 황토현 인형극, 황토현 민중대토론회 행사를 시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2004. 5월부터 12월까지 학생, 교사, 일반 인등 교육희망자, 연 360명을 대상으로 강의 및 시청각교육, 답사, 전시관 관람 등 체험학습과 여름학습, 현장학습 등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 관련유적

㉠ 고부읍성(전라북도 기념물 제 53호)

성황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옛 고부군의 고을터이다. 이 성은 석성으로 둘레가 2,369척, 높이가 13척이며 성에 우물이 3개가 있었다고 한다.(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 군자정(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133호)

주위가 연못으로 둘러 있기 때문에 원래의 정자 이름은 연정이었다. 조병갑이 자주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 조규순 영세 불망비

1893년 고부군수 조병갑이 자기 아버지의 영세 불망비를 세운다면서 1천량을 갈취하여 농민들의 원성을 샀던 문제의 비석이다.(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1의1~6)

3. 문제점

(1) 기념사업

독재정권 하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금기 시 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인 1967년에 최초로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현재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조직하여 현재 36회까지 기념제를 치러 오면서 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동학농민혁명이 정읍의 문화정체성으로 굳어져 왔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 고장으로서 지역 내에 관련 유적지가 많고, 기념사업의 역사와 전통 또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깊은 만큼 일찍부터 선양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에 있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회고적인 사고에 갇혀 있어 시민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신세대들에게는 동학농민혁명의 생명존중정신, 평등사상, 자주정신 등 새로운 정신적 가치관으로 와 닿게 하는 정신계승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의 탄압 내지는 정략적인 이용과 그에 맞서는 기념사업회의 역량 여하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때문이다. 즉 관이 주도한 관련 사업은 정권에 따라서 또는 정략적 이해의 정도나 관이 지니는 속성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에서 추진한 사업은 관과의 갈등,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시민운동의 성숙 여부나 주체의 변화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유적지 개발 과정

첫째, 황토현 일대 유적지를 제외한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이 소외된 채 지나치게 황토현 전적지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유적지 정비가 이뤄지면서 인근 관련 유적지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이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이 산재된 채 균형감 있는 권역 형성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나치게 전봉준 장군에 초점이 맞추어 지다 보니 무명농민혁명군이나 다른 지도자들에 관한 유적지들이 거의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적 이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유적지 개발사업의 주체가 역사적 장소가 지니는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념사업의 주체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정치적 정세와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유적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못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 즉,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역사적 특성에 걸맞는 기념사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추진 주체의 힘에 의해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면서 유적지별로 커다란 편차가 생겼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두환 정권 때에는 지나치게 전봉준 관련 유적지가 집중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혹은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들의 유적들과 묘역이 앞으로 다른 역사적 인물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념사업이 무엇인가만이 먼저 고려되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황토현 전적기념관에는 고증을 소홀히 한 채, 별로 연관성이 없는 유물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농민의 모습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따르는 동상과 부조물, 심지어는 황토현 일대를 정비하면서 주변에 일본산 리기다 소나무를 심는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현재 기념관의 지리적 위치 및 도로망이 잘못 설계되어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자칫 외부에서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점과 기념관의 전체 배치가 정면에 사당이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전통적인 예에 어긋나고 사당을 자칫 부속 건물처럼 여기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적지 내에 각종 시설물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과 광장 및 광장의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등이다. 특히 황토현 전적지 주변에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기타 편의시설 등이 없어 이곳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학습이나 답사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정읍시나 내장산 국립공원 등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도 자원의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개발되기 시작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기념관은 정부가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현 황토현 전적기념관 및 일대 부지 10만여 평의 터에 3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신교육관과 전시관, 야외교육

장, 동학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래는 1단계 사업을 2002년까지로 하여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시관과 교육관 및 주차장 일부를 완료할 예정이었고, 2004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야외교육행사장과 동학문 및 기타 시설을 갖추어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차질로 1단계 사업은 2004년 4월말경이나 교육관 및 전시관이 준공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현재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숏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받아 왔던 황토현 전적기념관의 대대적인 개선 보수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명실상부하게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 기념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은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념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발전 전망이 정권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파행행정으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이기만 한다. 예산을 이유로 계획의 차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관에 대한 활용계획만 있고 교육관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전시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초·중·고가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할 예정인 바, 기념관·도서관·문화센터 같은 기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동학혁명기념관이 이러한 지역의 문화교육시설로서 큰 역할을 하기엔 개발과정에서부터 의심받고 있다.

IV.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1. 기념사업 및 유적지 개발 전략

지방자치제도가 궤도에 오르면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문화유산으로부터 지역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기념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우리 정읍이 보유한 가장 훌륭한 문화적 자원이기도 하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과 역사상 유래가 없는 민중혁명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련 유적지는 점점 답사코스로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바로 살아 있는 정읍의 정신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하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하며 이러한 고민이 담긴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한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유적지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109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오늘날 되살리는 방향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부농민봉기가 발발하였던 현장에서 동학정신을 구현하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등장하려고 합성을 드높였던 역사의 현장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부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이곳은 이미 황토현 전적지를 조성하였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완공 단계에 와 있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이러한 시설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인데 정읍시와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역사의 현장인 황토현에서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을 드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 중의 중요한 하나가 기념제를 활성화하는 일일 것이다. 역사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혁명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시민과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고귀한 혁명정신을 선양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또한 당시 농민들의 개혁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정신도 되살리게 되어 국가나 사회의 부정부패도 줄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관련 단체가 20여 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단체를 선도하려면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단체인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그에 걸 맞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개관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궤도에 들어선다면 자칫 기념행사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도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금년 행사부터 황토현 전적지에서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여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기념제의 핵심은 기념행사이지만 자칫 주제가 무겁게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축제 요소도 가미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뿌리도 없는 축제의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고부농민 두렛굿 형태를 살린 축제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셋째, 집중과 분산의 원칙을 통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황토현에 세워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을 지닌 중심센터가 되면서 기념사업뿐만이 아니라 관내 유물·유적의 집중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읍지역의 역사 및 문화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집중의 효과만을 고려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관련 유적지의 정비를 부실하게 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적인 이해와 체험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부동헌, 만석보, 전봉준 고택, 무명농민군 위령탑, 전봉준 단소, 최경선 묘역, 김개남 묘역, 손화중 묘역, 말목장터,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투지인 태인 전투지역 등 지역 내 각종 유적지와 연계하여 소위 ‘동학농민혁명 역사체험벨트’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관련 유적들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살려 황토현 유적지가 지니는 집중성과 동시에 각 유적지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동학농민혁명이 지니는 역사성을 제대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기념사업과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개선 및 보완사업의 기본방향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니는 역사성 즉, 민중적 성격과 자주적 성격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도자 중심의 기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동안 조명되지 않은 지도자나 무명농민혁명군을 기리는 사업이 기념사업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있어서도 상징의 통일성은 갖되 형태의 다양화를 꾀해 지역 내 관련 유적지가 가지는 획일화를 피하는 다양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념사업이 지역주민과 동화되어지는 정신문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유적지 개발의 경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읍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높은 만큼 주민들이 쉽게 만지고 접근할 수 있으며 애착심을 갖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실제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봉준 고택과 같이 마을과 연계된 흐름 속에서 유적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안내판 설치 및 통일적인 정비를 통해 보다 친근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유적지로 만들어야 한다. 정읍지역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어느 방향에서도 유적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관련 유적지 전체를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안내지도서를 제작하고 모형지도를 설치하며 안내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임을 알리는 도로 이정표의 통일적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일곱째, 유적지와 교육관은 개념적으로 분명히 분리될 필요가 있다. 유적지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체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고 교육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 유적지는 현장성을 강조하되 동학농민혁명 전반에 대한 교육은 유적지와는 별도로 일정한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즉, 교육장은 동학농민혁명정신이나 기타 관련성 있는 별도로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적절하게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일반 유적지는 역사적 사실이나 해당지역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정비되어야 한다.

2.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1) 필요성

문화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각국은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킨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자국의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촉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4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관광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관광분야에 큰 관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인력이 높은 이벤트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정읍시는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에서도 동학농민혁명문화권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황토현 황토관광지’ 조성계획과 ‘동학농민혁명 문화관광특구’ 설치를 위한 노력 등이 돋보인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특히 정읍지역의 경우, 정권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되면서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온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성공하지 못한 전적유적지로서의 한계 때문에 지난 109년간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가 거의 보존되지 못해, 유물·유적의 훼손과 활용에 대한 많은 제약 등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볼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사업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전적지 문화자원은 대부분 주제 자체가 경직되어 있어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완의 슬픈 역사를 지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래서 외래 내방객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학생들 이외의 다른 계층은 아직은 적은 것이 현실이다. 문화유적에 대한 무관심은 유적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심하게 훼손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없는 곳에 문화가 존재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적 지향을 외면하면 할수록 일반인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져 가게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외래관광객까지를 문화적 관심아래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까지를 포함한 정읍지역 전체 유적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화 방안이 요구된다.

(2) 관광상품 개발 전략

가. 학생 현장체험교육상품 개발

첫째, 학교 교육은 다수의 청소년들의 의식과 정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

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혁명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 관련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련 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더욱이 1개월에 한번 꼴로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열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역사도 배우며 여행문화도 접할 수 있는 관광연계 교육상품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둘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학생 역사체험 학습장의 활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교육상품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영상, 사진 자료들을 활용한 다양하고 흥미 있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민주, 자주, 평등의 이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현장으로서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전라북도 내 청소년들 뿐 아니라 타 지역의 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넷째, 타 지역 학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교육적이면서도 매력이 있는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그 동안 수학여행코스가 경주를 중심으로 짜여져 왔으나 지금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추세인데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정신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동학농민혁명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일반인을 위한 역사기행상품 개발

현대관광은 단순히 자연경관 감상이나 위락적 차원을 넘어, 역사적 유적 및 현장을 탐방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문화관광 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광의 변화 추세를 활용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역사기행 코스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가족단위, 동호인 모임 단위, 대학동아리 단위의 역사기행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동아리 모임, 전국 각지의 민간단체들, 그리고 각 대학들에 대한 홍보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역사연구 전문가들의 관심을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다. 주변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타 지역 주민들의 정읍지역 관광은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일반 관광객들에게 소개되고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방문한 관광객들로 하여금 정읍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읍에 대한 포괄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는 도중에 주변의 유물·유적과 기타 관광자원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라. 관광상품 마케팅 전략 수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였으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부대시설들을 정비해야한다. 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유적지별로 인근 숙박시설 및 음식점과 휴식공간 그리고 주변의 문화역사유적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관광지들이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 제공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만을 무기로 그들의 방문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는 고도의 관광상품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와 연대하여 생존경쟁의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전략 수립 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유적지 주변의 역사문화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보한다.

둘째, 유적지 주변의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보한다.

셋째, 유적지 답사안내지도 및 책자를 제작한다.

넷째, 유적지별 이동시간 및 도로정보를 확보한다.

(3) 관광코스상품 개발(예)

가. 당일 코스

정읍 IC → 동학혁명 모의탑(사발통문 작성지) 및 무명농민군 위령탑 → 고부관아터 → 전봉준 단비 → 전봉준 고택 → 만석보유지비 → 만석보 협파비(예동마을) → 말목장터 → 황토현 전적기념관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황토관광지 → 정읍사공원지구 →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 내장산 리조트개발지구 → 내장산집단시설지구 → 내장IC

나. 1박 2일 코스

1일차 : 정읍IC → 손화중 묘역 및 생가터 → 동학혁명 모의탑(사발통문 작성지) 및 무명농민군 위령탑 → 고부 관아 → 전봉준 단비 → 전봉준 고택 → 만석보 → 만석보 협파비(예동마을) → 말목장터 → 황토현 전적기념관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황토관광지(숙박 및 휴식)

2일차 : 피향정 → 태인 동헌 → 최경선 묘역 → 김개남 묘역 및 생가터 → 섬진강댐 → 무성서원 → 상춘곡 가사비 →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 내장산리조트개발지구 →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 → 백제정촌현지구 → 정읍사공원지구 → 정읍IC

다. 2박 3일

1일차 : 정읍 IC → 손화중 묘역 및 생가터 → 동학혁명 모의탑(사발통문 작성지 및 무명농민군 위령탑) → 고부 관아 → 전봉준 단비 → 전봉준 고택 → 만석보유지비 → 만석보 협파비(예동마을) → 말목장터 → 황토현 전적기념관 → 황토관광지(숙박 및 휴식)

2일차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 피향정 → 태인동헌 → 최경선 묘역 → 김개남 묘역 및
생가터 → 섬진강댐 → 무성서원 → 상춘곡 가사비 →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 → 내
장산 집단시설지구(숙박 및 휴식)

3일차 : 국립공원내장산 → 전봉준 피체지 →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 내장산리조트 개발
지구 → 백제정촌현지구 → 정읍사공원지구 → 정읍IC

V. 결론

21세기는 가히 문화관광의 시대라 하리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다. 정읍시도 정책적으로 문화관광국을 최상위 행정기구로 두고
관련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주변에
황토를 주제로 한 관광지 개발 관련계획이다. 기존의 인식은 동학농민혁명 하면 무언가 어
둡고 장엄하리 만큼 절제되어 있어서 쉽게 다가서기가 어려운 대상 자체였다. 그 동안 문화
유적지, 그 중에서도 실패한 혁명 유적지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일반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시키지 못한 데에 큰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정읍시가 최근 수립한 황토현 황토관광지 조성계획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획
기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듯 싶
다. 본 연구도 그 주제가 다소 무거울 수밖에 없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좀더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수행의 동기와 배경을 문제제기 형태로 서술하였고, 제 2장에서는 연구주
제를 이해하고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정읍지역의 관광환경들을 분석하였고, 제 3장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포함한 기념사업의 현황과 유적지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
들을 기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 및 기존 연구
성과물들을 참고하여 기념사업 및 유적지 개발 전략과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안하
였다. 다만 연구대상지역이 정읍지역으로만 한정되었다는 점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이 제외되어서 제안된 방안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
으로 남는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념제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제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적지별 개발방안 제시가 어려워
서 전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
기고자 한다.



남북 민족 동질감 회복을 위한 동학사상적 접근

미국 심슨대학 종교철학부 신 은 희

I. 민족이란 무엇인가	49
II. 동학사상의 신 인본주의 (Neo-Humanism)	50
III. 사인여천과 주체 공동체	51
IV. 한민족 (One-Corea)과 다양한 코리아 (Multi-Corea)	52

I. 민족이란 무엇인가?

1) 사상적 이념으로서의 민족 개념

- 가. 민족국가라는 구체적 집단을 일차적인 준거집단으로 신봉하고 그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내 집단의 연대성을 확보 내지 강화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 (고영복, 1967, 46)
- 나. 국가적 수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정체성을 촉진시키는 매체 (최상용, 1977, 90)
- 다. 자기민족이라고 자각한 사람들이 자기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이도숙, 1981, 26)

2) 조직화된 운동으로서의 민족 개념

- 가. 민족주의란 국가적 수준에서는 국가가 당면한 제 일차적 실천과제로서, 개인적 수준에서는 민족주의자의 의지와 행동의 표현 (노태구, 1981, 12)
- 나. 집단공동체의 응집력을 통한 하나의 에너지 (한정일, 1983, 1983)
- 다.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와 투쟁하면서 자국내의 제 모순을 개척해 나가는 운동이며 자유롭고 풍요한 민주적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박창희, 1983, 307)

3) 서양 민족주의의 개념과의 차별성

- 서구의 민족개념: 사회적 진화 혹은 변화의 과정적 산물로서의 민족
- 사회적 동질성에 기초한 정치적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민족개념이 형성
- 다민족으로 구성되는 서구사회에서 출현하는 국민중심의 민족 정체성

4)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 가. 남북 문화적 양극체제의 극복
- 나. 국제적 협동
- 다. 평등사회 지향
- 라. 민주주권의 정착과 인권회복

마. 민족 주체성 강화

5) 한국민족주의의 대표적 모델 : 동학혁명

가. 민족 정체성의 인식과 민족자존의 고양

나. 반제, 반봉건의 민중주의 출현

다. 국민주권의식의 정치 운동화

라. 자주독립의지와 운동력

마. 근대화 의지

Ⅱ. 동학사상의 신 인본주의 (Neo Humanism):

- 남북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상적 대안

1) 동학사상의 역사적 배경

가. 조선말 주변인 수운 최제우

나. 대내적 배경 : 조선왕조 사회의 유교적 양반체제 몰락, 농민폭동, 삼정문란, 경제적 파탄, 세도정치의 위기

다. 대외적 배경 : 서유럽 열강의 중국 침략이 시작된 문명사적 전환기, 정치적 문화적 제국주의가 동아시아 문명의 질서 위협

라. 동학의 창조: 서학의 사상적 전제

2) 동학의 사상전개 : 시천주, 양천주, 체천주 사상

가. 신분계급을 극복한 수운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

-천주의 신관 (theism) 이해, 한울님 사상

-서구 유일신 하나님 (God) 사상과 차별적인 한국적 범재신론 (panentheism)의 신관

-유불선의 삼교를 창조적으 습합시킨 “기화지신” “내유신령”의 한국적 사상

-보국안민의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자생적인 한국사상

나. 신과 인간이 만나는 해월 최시형의 양천주 사상

-인간을 하늘처럼 대하라는 사인여천의 한국적 인권개념의 정교화

-물물천 사사천: 만물 만사가 모두 천의 본성을 가졌음을 강조함으로 만인은 상하귀천의 차별없이 모두 천이요 산천초목도 온 우주의 자연도 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태학

적 사상
-베짜는 며느리 이야기

다. 신인간의 합일을 이루는 의암 손병희의 체천주 사상
-체천주 혹은 인내천 사상: 사인여천의 신유교적 해석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엮어지면서 신과 인간의 세계가 존재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교류관계로 승화됨
-“인간이 곧 하늘“ 이라는 ”범천주의“ 윤리관 정립

라. 동학의 시천-양천-체천의 신 인본주의
-여성해방, 소수민족옹호, 아동존중사상, 계급타파의 동학의 인권
-공동체내에서의 자아. 객체와 공동체의 관계

Ⅲ. 사인여천과 주체 공동체

1) 동학의 사인여천과 북조선의 이민위천 사상

가. 주체란 무엇인가?
나. 이민위천의 사회정치 생명체 사상: 수령, 당, 인민의 원운동적 삼위일체적 신공동체
- 인간중심주의의 주체문화
- “인민대중의 머슴”으로서의 수령과 당
- 탈근대화시대의 신공동체주의 출현
- 주체 민족주의론: “조선민족제일주의”의 해석
- 도덕적 존재론 (moral ontology)과 도덕적 범재신론 (panentheism)

2) 신인본주의로서의 만남

가. 배타주의 모델 (Exclusivism)
나. 포괄주의 모델 (Inclusivism)
다. 다원주의 모델 (Pluralism)
-후기 자유주의 모델 (Postliberalism)
-신중심 다원주의 모델 (Thecentric Pluralism)
-구원사적 다원모델 (Soteriocentric Pluralism)

Ⅳ. 한민족과 다양한 코리아

- 1) 민족의 동질성 담론: 가능성과 한계
- 2) “차이”와 “다양성”의 아름다움: “차별”에서 “차이”로
- 3) 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평화공존의 통일
- 4) 다양성속에서의 연합 (Unity in Diversity)

발표자 및 토론자 프로필

■ 우 윤

- 現 전주역사박물관장
- 現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저서]
-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 『우리 역사를 읽는 33가지 테마』
- 『1894년』
- [논문]
- 동학의 정치·사회적 성격
- 동학과 전감록의 관련성 연구등

■ 송 정 수

- 現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 現 동양사학회 이사
- 現 중국사학회 이사
- 現 역사교육학회 이사
- 前 전북대 박물관장
- [저서]
- 『중국근세 향토사회사 연구』
- 『중국민중반란사』
- 『중화제국의 완성』
- [논문]
- 『전봉준장군 출생지에 대한 연구』외 다수

■ 신 은 희

- 現 미국 심슨대학교 종교철학교수
- 現 연세대학교 국제교류부 초빙교수
- 김일성종합대학교 특강교수역임
- 오하이오 노던대학교 종교철학부 교수 역임
- [학력]
- 상명대학교 교육학 학사
- 토론토대학교 빅토리아 대학 신학석사
- 토론토대학교 철학박사

■ 이 재 봉

- 現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現 남이랑북이랑 더불어살기위한 통일운동 대표
- [학력]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텍사스텍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졸업
 -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 김 정 수

- 現 전북과학대학 관광계열 교수
 - 現 전북 전통문화연구소 전문위원
 - 現 한국관광연구학회 이사
 - 現 관광품질시스템학회 이사
 - 前 정읍시 관광산업
- [저서]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론』
 - 『통일과 관광』외 다수
- [논문]
- 『전통제전과 향토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
 - 『전라북도 관광자원 선택 요인분석에 관한 실증연구』외다수

■ 장 병 권

- 現 호원대학 관광레저학부교수
 - 現 새만금관광연구센터소장
 - 現 한국관광학회 이사
 - 現 한국문화관광학회 이사
- [저서]
- 『국민관광론』
 - 『관광과공공정책』외다수
- [논문]
- 『21세기 전라북도 관광발전 전략』
 - 『전라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시책평가』

MEMO.

MEMO.
